北-中 대화엔 의견 일치… 비핵화는 입장차

최룡해 "6자회담 등 원해"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친필 서신 전달… 새누리·민주 환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북한 측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이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며 대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 총정치국장 일행을 접견했다.

최 총정치국장은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 측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정치국장은 북한이 경제 발전, 민생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전통적인 북·중 우호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부단히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최 총정치국장이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힘줘 말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그의 방중 목적에 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타진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유관 각국이 반도 비핵화 목표,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이어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 긴장을 완화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와 관련, "중조(북중) 우호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건강,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총정치국장은 시 주석에게 김 제1위원장의 친필 서신을 전달했다.

시 주석을 예방하는데 성공한 최 총정치국장 일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현지시각)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귀국, 2박3일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과 관련,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이를 환영하며 북한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러 극동 오호츠크해서 최대 8.2 강진

해저 600km… 사할린섬 한때 쓰나미 경보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서쪽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24일 오후 최소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러시아 재난당국이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지 비상사태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께 오호츠크해 해저에서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은 해저 600km 지점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오후 2시47분께 러시아 사할린섬 근해에서 강진이 발생했으며 지진 규모는 8.2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진원은 북위 54.7도, 동경 153.4도이고 깊이는 590km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이날 오후 2시44분께 캄차카 반도에서 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사할린 근해(북위 54.87도, 동경 153.334도)의 해저 601.8km 지점에서 규모 8.2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충격으로 캄차카주(州) 주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크에선 진도 4~5의 진동이 약 5분 동안 계속됐다.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진도 1~3이 계측됐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인근에서는 한때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하지만 경보는 오후 5시 17분을 기해 해제됐다. 지진으로 인한 특별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비상사태부 캄차카주 지부는 밝혔다.

이날 지진은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은 물론 진앙지에서 1만km 이상 떨어진 수도 모스크바와 일부 유럽 지역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 하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러시아 사할린 근해 지진 발생

자료/ 일본 기상청, 미 지질조사국(USGS) 연합뉴스

민주 외통위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3000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6일 동료 민주당 외통위원들과 함께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3000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까지 사흘간 매일 1000번씩 절을 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양승조·우상호·윤호중·전순옥·최민희·한정애 의원 등이 동참한다.

29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통일부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3000배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 '노무현 4주기' 골프… 친노 비판

전 靑 참모들과 23~24일 경남 거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일인 지난 23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3~24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의 민주당 김현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 4주기 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애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젠 추모골프?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 없는데도 해외 원정 골프를 치고…, 유유상종이죠"라고 비판했다.

친노계 최민희 의원도 트위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서거 4주기 바로 그날, 거제도에서 골프치셨네요. 참회의 골프였을까요?"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러, 60일까지 비자면제 잠정 합의

9월 정상회담때 서명

우리 국민이 앞으로 60일 이하 기간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러 영사국장회의에서 양국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문안을 전반적으로 합의하고 적절한 계기에 서명하기 위한 국내절차 추진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러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뒤 그동안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

비자면제협정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이하 단기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방문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비자 면제기간은 60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에는 60일 경과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30일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협정 문안을 확정하고 서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9월께로 추진중인 한러 정상회담 기회에 비자면제협정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운태 시장 방러 출국

강운태 광주시장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2013스포츠어코드'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105개 스포츠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협회 간 협력과 소통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강 시장은 '2013스포츠어코드'에 참가, 국제수영연맹(FINA) 위원과 세계 각국의 스포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활동을 펼친 뒤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씨 선출

광주환경시설공단 새 이사장에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환경시설공단은 24일 인사검증공청회 등을 열어 박 전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가 100%(5억원) 출연한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장 등 광주의 주요 환경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서구 쌍촌동 2종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화순읍 연양리 자연녹지 답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임 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